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 해에 실시됩니다.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적임자인지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종파를 떠나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둘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눈 감아 주지 말고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셋째,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넷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아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합시다.

다섯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2012. 3. 9.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홍 재 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김 희 중(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공 동 대 표	김 주 원(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임 운 길(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